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㉜·끝

第三 關于觀無念已得寂靜輕安
제삼 관우관무념이득적정경안
而還到任何境界的人
이우도임하경계적인
爾只照顧本參話頭
이지조고본참화두
一念不生
일념불생
佛來佛斬 魔來魔斬
불래불참 마래마참
一概不理他
일개불리타
自然無事 不落群邪
자연무사 불락군사

셋째, 무념을 관하여 이미 적정·경안에 들어 어떤 경계에 도달한 이에 관한 것이니

이들은 다만 본래 참구하던 화두를 되돌려 비추되 한생각 내지 말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고 마군이오면 마군을 베어 한결같이 저를 따지지 않으면

자연히 일이 없고 삿된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第四 關于妄念已歇
제사 관우망념이헐

높고높은 산봉우리에 우뚝서고
깊디 깊은 바다밑을 거닐면서 다시 손을 놓아 종횡으로 행동하리라.

以上所說 都是對末法時期的鈍根人說
이상소설 도시대말법시기적둔근인설
的方法
적방법
其實宗門上上一乘
기실종문상상일승
本師釋迦牟尼佛
본사석가모니불
在靈山會上
재영산회상
拈花之旨 敎外別傳
염화지지 교외별전
歷代祖師 惟傳一心
역대조사 유전일심
見性成佛
견성성불
不落階級 不假修證
불락계급 불가수증

이상 설한 바는 모두 다 말법시대의 노둔한 근기인에 대치한 방법이나

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상상일승이다.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 계실때 꽃 한송이를 드신 뜻으로 교문밖에 따로 전하시고

'하나' 향해 사무치면 깊은바다 밑도 종횡
이자리서 망념 일지 않아야 여여한 부처

淸淸爽爽身心自在
청청상상신심자재
的人
적인
應如古人所說
응여고인소설
萬法歸一 一歸何處
만법귀일 일귀하처
由一向至極處邁進
유일향지극처매진
直之高高山頂立
직지고고산정립
深深海底行 再撒手縱橫去
심심해저행 재살수종횡거

역대조사님들이 오로지 한마음 전하여 견성 성불케 하심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 증득함을 빌리지 않은 것이다.

一言半句卽了無一法可得
일언반구즉료무일법가득
無一法可修
무일법가수
當下就是不起妄緣 卽如如佛
당하취시불기망연 즉여여불
那裏有許多閒話呢
나리유허다한화니

넷째, 망념이 이미 쉬고 맑고 상쾌하여 신심이 자재한 이에 관한것이니

옛사람들이 설한 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처럼

하나를 향해 지극하게 사무치면 바로

그러므로 일언반구라도 한 법조차 얻을게 없고 한 법이라도 닦을게 없노라.

이 자리에서 망념된 반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여여한 부처자리이니

이 가운데 무슨 쓸데없는 말이 많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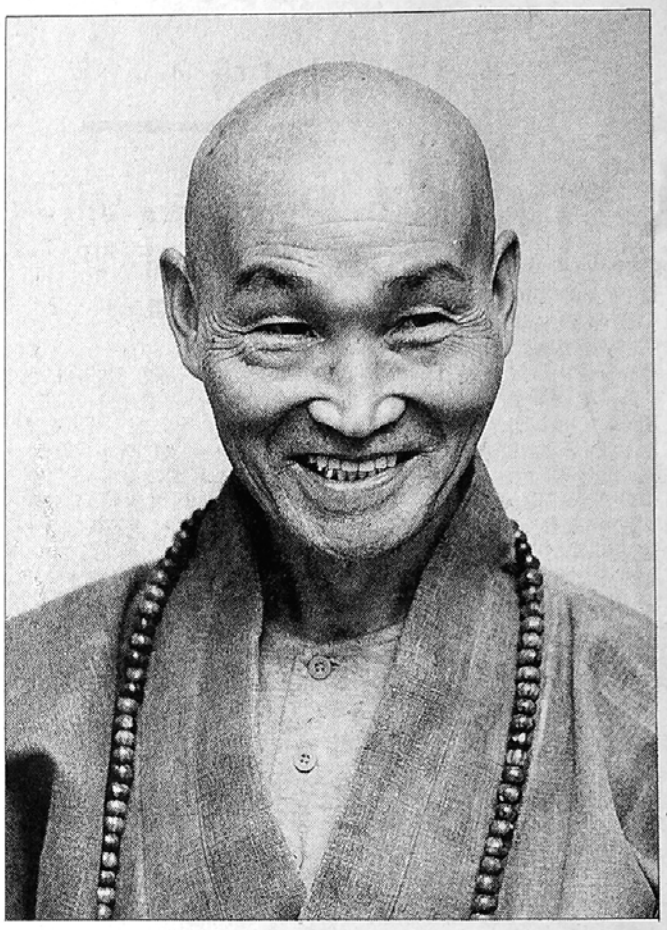
龍眼

인간연재를 '虛雲和尙의 참선요지'는 이번 호로 끝나고 다음 호부터는 '법구경'을 연재합니다.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구경은 423편의 시집으로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이 경은 혼탁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 삶의 더 없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한역본을 우리말로 옮겨 매주 독자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성원바랍니다.

큰 스님 수행한담

"삼매로 습기 녹여야

청 화 스 님 〈성륜사 조실〉



'나'라는 관념때문에 相이 생기고
삶이 무거워 지니 매일 업장 녹이다보면
치우침 없이 다 포함된 자리 이룹니다

내가 3년결사를 발원하고 미국에 건너와 이렇게 1년여 살고있자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미국에 오게됐냐는 겁니다. 달마스님께서는 공부가 다 성취된 뒤에 동토지방을 제도할 원력으로 동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이도 많고 미숙한 채로 미국불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가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서고, 미국의 각국 불교들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화합도 안되어 있는 것도 같아서 융합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또한 미국은 선진국으로 세계의 석학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교류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 미국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분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은 모두가 실체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나 관념 심지어 대상물 모두가 실제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온개공(五蘊皆空)'입니다. 오온에는 인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오온은 본래로 실존이 아니요 가상인 것이고 허망상인 것이기 때문에 공(空)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생이 인식하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요, 잘못 보는 것으로서 실저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야바라밀인 중도실상(中道實相)입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의 생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대화도 하고 행동해야 분열 갈등이 없어집니다. 또 모든 일을 진리의 조명아래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실상은 어디에도 안 치우치고 모두가 다 포함된 자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듯이 허망 무상한 상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텅 비어서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모두를 다 초월한 자리이며, 모든 성자들이 체험하는 참다운 생명자리입니다. 일체 가상을 떠나서 인생과 우주의 본래 생명의 실상자리가 바로 중도실상 자리입니다.

중도실상 자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도저히 자기 분상에서 납득이 안되니까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희찬탄(隨喜讚嘆)하는 마음으로 바로 수용하는 마음이 되면 납득하게 됩니다.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가장 정직하고 총명하고 바로 깨달은 분인데 그 분들이 옳다고 했으니 그대로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전폭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염불이나 주력이나 화두나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다른 생각을 않고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루 하루 한만큼 업장이 녹아짐에 따라서 중도실상의 경계가 점차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동 서양 철학서적을 이것저것 섭렵했습니다. 동양철학을 넘보면서 물론 불교서적을 만났지요. 경전도 보고 불교입문서도 보면서 나름대로 불교의 윤곽이랄까요, 겉을 잡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집안의 6촌 동생이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아, 그러느냐?"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수양도 좀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워낙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미련없이 그대로 출가했습니다. 바로 은사이신 금타스님이셨습니다. 그 어른은 실로 모든 점에서 자기 개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셔서 진정 진리의 불덩이 같이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법문에서 제가 기독교나 현대과학에 있어서 막혔던 문제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다 풀리니까요. 오랜동안의 회의가 풀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는 환희용약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수행이 철저하셔서 '스님의 방법을 취하면 꼭 성불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서게되니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 1923년 生
- 1946년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
- 40여년을 토굴수행 장좌불와 정진
- 곡성 태안사 조실 역임
- 95년부터 美 팜스프링 금강선원 주석

재가불자도 한달에 여섯날은
출가한 셈치고 오계 수행하세요
몸도 정신도 맑아 환희심 얻습니다

그 후 40년여년을 은사스님처럼 수행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종식하고 장좌불와(長座不臥)의 방식이었지요. 젊어서는 고집을 부리고 장좌불와한다고 했고 근 30년을 토굴생활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철저한 셈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면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토굴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여러끼니 해 먹기도 귀찮스럽고 하루 한 끼니만 먹으면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것은 그만치 피순환이 잘된다는 것이고 또 피순환이 왕성하니까 병균이 못 침범하겠지요. 사실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승가생활에서 아침에 배고플 때는 죽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종식이지요. 저도 역시 원칙은 지켰으나 어디에 초청되면 애써 대접하는데 안 먹으면 미안스러우니까 더러 먹기도 했습니다.

또 젊어서는 어거지로 상을 내서 잠도 안자고 앉아서 버텼지요. 그러나 지금은 몸뚱이도 쇠약해지고, 이제는 앉으나 서나 공부에 망상도 별로 나올 때가 아니고 해서 될수록 안 눕는 쪽으로 원칙은 세워놓고 고집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피로

한 국 역 학 대 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7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1. 모 집 과 정

구 분	분 야	과 정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교육 과 정	불 교	불교란 무엇인가		1학기	주·야간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1학기	주·야간
	문 화	문예창작		1학기	주 간
		영화다시보기		1학기	주 간
		교실속의 세계여행		1학기	주 간
	경 제	재(財)테크 교실		1학기	주·야간
	건 강	한방건강교실		1학기	주 간
		선기공(禪氣功)		1학기	주 간
	정보 매스컴	광고·카피라이팅		1학기	야 간
		컴퓨터교실	Internet/Win95	1학기	야 간
			PowerPoint/한글3.0b	1학기	
			Excel/MS word	1학기	
전문교육 과 정	불 교	불교전문교육		2학기	주 간
		경전강독 (유마경)		1학기	주·야간
		불교영어		1학기	야 간
		불교고전어(산스크리트어)		1학기	야 간
특별교육 과 정	박 물 관	불교박물관 교육과정		2학기	주 간
	불 교	「동국TV불교아카데미」		2학기	BTN T.V강좌
단기과정	자 격 증	경비지도사 준비과정		4개월	주 간
	창업·부동산	소자본 정보경영(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부동산 투자관리교실(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2. 지 원 자 격
제한없음 (단. 불교영어는 고졸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년 2월 17일(월)~2월 26일(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3×4cm)사진3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TV불교아카데미」과정 지원자에 한함)

5. 문 의 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 260-3727~29 / FAX : 260-3730

신토불이 방생

우리 강산과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물고기를 방생합시다

- 배달도 해드립니다 -

자라,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연 락 처
전 화 : 272-3596~7
Fax : 363-3597
자 택 : 363-7067
휴대폰 : 017-234-359-7
(동대문 광장시장 47호)
은 하 상 회